

TDB경기동향조사(전국) — 2015년 11월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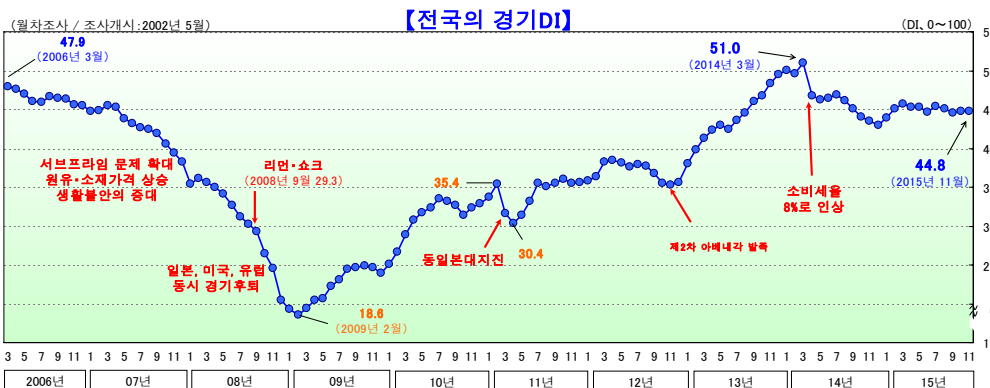
국내경기는 교착상태로

~ 국내외의 경제정세에 리스크를 안고, 시계불량이 지속 ~

(조사대상 2만3,051사, 유효회답 1만620사, 회답률 46.1%,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 포인트

- 11월의 경기DI는 전월과 같은 수준인 **44.8**을 나타내었다. 연료가격의 하락으로 기업의 코스트 부담이 완화된 한편, 중국경기의 감속은 『제조』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시에 보험세를 보이는 등 국내경기는 교착상태가 되었다. 향후에는 기업업적이 견조하나 장래의 불투명감이 떠도는 가운데 일진일퇴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 업계별로는 『건설』 『운수·창고』 등 4개 업계가 개선된 한편, 『도매』 『소매』 등 4개 업계가 악화, 『제조』와 『서비스』의 2개 업계가 보험되었다. 국제상품가격의 하락으로 매입가격의 상승이 어느정도 완화된 가운데 자동차 관련은 서서히 개선경향을 나타내었지만 가계의 절약지향이 높아지고 있다.
- 지역별로는 『호카이도』 『키타칸토』 등 5개 지역이 개선, 『킨키』 『큐슈』 등 3개 지역이 악화, 『미나미칸토』와 『호쿠리쿠』의 2개 지역이 보험되었다. 『키타칸토』는 자동차관련이 호조를 띄며 2개월 연속으로 개선된 한편, 『킨키』는 개인소비관련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경기감속의 영향을 받아 4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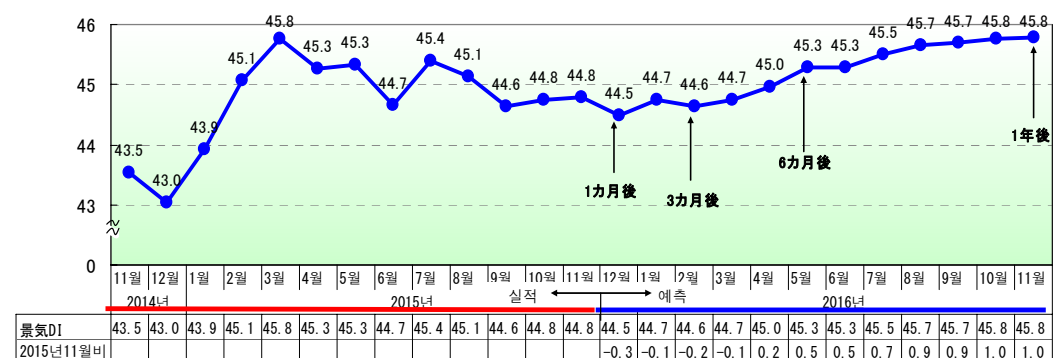
< 2015년 11월의 동향 : 교착상태 >

2015년 11월의 경기DI는 전월과 같은 수준인 44.8을 유지하며 경기변동은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11월은 내각부에서 2015년 7~9월기의 실질 GDP성장률이 전기 대비 -0.2%로 2사분기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되었다고 공표하였다. 중동산 두바이 원유가 일시적으로 7년만에 1배럴=40달러를 무너뜨리는 등 원유가격이 최저치로 추이하여 가솔린이나 경유가격이 5년 연속 저하, 기업의 코스트 부담을 완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한편,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가계의 절약지향은 높아지고 있어 『소매』는 3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중국경기감속의 영향이 『제조』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알루미늄이나 구리 등 국제시장에서 결정되는 상품가격은 중국 등의 수요침체로 하락하고 있으며 수입을 통한 매입가격은 서서히 안정감을 되찾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9년 9개월만에 동시보험을 보이는 등 국내경기는 교착상태가 되고 있다.

< 향후의 전망 : 일진일퇴로 추이 >

해외경제에서는 신흥국이나 자원국경제의 하향에 의한 세계경제의 감속우려 이외에 미국에 의한 금리인상의 영향은 수출의 마이너스 요인이 될듯하다. 국내에서는 재고조정 압력이 남아있으며 장래의 불투명감을 배경으로 한 설비투자의 방관적 자세나 인력부족에 의한 인건비의 상승 등 기업의 코스트 부담이 우려요소가 된다. 반면, 2016년도에 들어와서는 2017년 4월의 소비세를 인상을 앞둔 갑작스런 수요가 주택이나 고액의 내구재 등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고용자수의 증대와 함께 소득의 증가가 기대된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기업업적이 견조하나 장래에 대한 불투명감이 감도는 가운데 일진일퇴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예측DI는 ARIMA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모델로 분석.

업계별 : 경기의 개선과 악화가 길항(拮抗)

• 『건설』 『운수·창고』 등 4개 업계가 개선된 한편, 『도매』 『소매』 등 4개 업계가 악화, 『제조』와 『서비스』의 2개 업계가 보합되었다. 자동차관련이 서서히 개선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가계의 절약지향은 높아지고 있다.

• 『운수·창고』 (45.4)…전월 대비 0.7포인트 증가. 2개월만에 개선되었다. 가솔린이나 경유 등 연료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코스트부담의 경감이 진행됨에 따라 개선이 보이는 일반화물 자동차운송 이외에 VW(폭스바겐)를 제외한 자동차 수입이 견조한 향만운송 등이 개선요인이 되었다. 더욱이 “해상 컨테이너의 양이 증가하여 컨테이너 선박의 기항이 증가하였다” (아마가타 현)라는 목소리도 있어 물류량의 증가가 호재료가 되었다.

• 『제조』 (43.3)…전월과 같은 수준. 신차효과 등 플라스틱 관련이 견조하였던 「화학품제조」(44.9, 동 0.5포인트 증가)이외에, 북미 등의 펄프 메이커에 의한 가격인하로 대일(對日) 수출가격의 하락이 호재료가 된 「펄프·종이·종이가공품제조」(42.4, 동 1.3포인트 증가)등이 개선되었다. 반면, 「기계제조」(47.3, 동 0.6포인트 감소)는 공작기계의 해외수요가 대폭으로 감소한 이외에 「정밀기계, 의료기계·기구제조」(47.9, 동 0.7포인트 감소)는 압력계·유량계·액면계제조 등으로 설비투자의 침체가 영향을 끼쳤다. 『제조』는 12개 업종 중 6개 업종이 개선, 5개 업종이 악화되어 개선과 악화가 팽팽한 결과가 되었다.

• 『서비스』 (49.6)…전월과 같은 수준. 「리스·임대」(49.2, 동 1.2포인트 증가)는 건설기계나 자동차, 산업기계, 간호관련 등의 리스가 호조를 띄었다. 또한 공공공사가 약보합 징후를 보이는 가운데 건축구조물검사나 인프라구조물조사 등이 상향된 「유지보수·경비·검사」(47.1, 동 1.0포인트 증가)가 개선되었다. 반면, 「음식점」(46.2, 동 3.0포인트 감소)은 2015년산(産)으로 전환된 쌀 소매가의 2개월 연속 가격상승이 영향을 끼쳤다. 「인재파견·소개」(52.5, 동 2.2포인트 감소)는 저조한 채용경기에 더하여 빠찌코업계 등의 규제강화도 더해져 2개월만에 악화되었다. 『서비스』는 15개 업종 중 7개 업종이 개선, 6개 업종이 악화되었다.

• 『소매』 (40.9)…동 0.7포인트 감소. 3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실질임금의 상승이 저조한 가운데 「음식료품소매」(41.4, 동 3.2포인트 감소)는 연말상업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가다랑어의 도매가격이 2배, 소매가격도 5할이 인상되는 등 어개류(魚介類)의 가격이 상승하여 요리품 소매나 선어(鮮魚)소매 등이 악화되었다. 가계의 절약지향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성·아동복이나 신발 등 「섬유·섬유제품·장신구 소매」(36.8, 동 3.3포인트 감소)가 크게 악화되었다. Windows XP의 서포트 종료에 따른 갑작스런 수요의 하락국면이 길어지는 「가전·정보기기소매」(38.7, 동 0.9포인트 감소)가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되는 등 『소매』는 9개 업종 중 4개 업종이 악화되었다.

	14년 11월	12월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비		
농·임·수산	38.6	39.5	41.3	40.0	44.0	43.7	45.0	41.9	42.9	44.7	44.7	44.6	45.2	0.6		
금융	45.3	45.2	45.1	44.7	48.0	48.1	47.4	49.2	48.1	46.5	46.3	47.3	46.6	▲ 0.7		
건설	51.0	50.3	50.4	50.4	50.8	49.3	48.6	47.7	48.6	48.8	49.1	49.5	49.6	0.1		
부동산	43.6	44.1	45.1	47.2	48.8	48.8	49.6	49.1	49.8	48.4	48.7	48.7	48.9	0.2		
제조	식품료품·사료제조	36.8	37.5	37.2	39.8	43.1	42.1	44.3	43.1	43.4	43.0	43.6	44.3	44.5	0.2	
	섬유·섬유제품·장신구제조	36.8	38.1	36.8	39.7	37.6	40.2	41.7	39.4	39.4	40.2	38.8	39.8	39.4	▲ 0.4	
	건축·가구·요업·토석제품제조	44.1	43.3	43.2	41.9	42.1	40.3	40.9	40.3	41.2	41.2	40.9	40.2	38.9	▲ 1.3	
	펄프·종이·종이가공품제조	36.1	36.3	34.8	37.3	39.3	39.8	40.0	39.0	39.7	42.0	40.8	41.1	42.4	1.3	
	화학·연쇄	31.5	31.0	31.8	33.5	34.1	34.6	34.1	33.5	33.7	34.9	34.8	34.8	34.6	▲ 0.2	
	화학품제조	42.9	43.3	43.2	44.5	44.6	44.1	44.4	43.9	44.7	45.3	44.4	44.4	44.9	0.5	
	철강·비철금속·광업	44.4	42.8	44.8	46.8	45.2	43.9	43.0	42.9	43.6	42.8	41.7	41.4	41.8	0.4	
	기계제조	50.0	48.6	49.6	51.5	52.6	52.5	51.6	51.3	51.9	50.3	47.3	47.9	47.3	▲ 0.6	
	전기기계제조	45.9	45.8	47.3	48.4	49.7	47.7	47.3	47.4	47.4	44.8	45.2	45.2	45.2	0.0	
	수송용기계·기구제조	48.0	47.7	47.4	50.3	50.4	51.1	47.8	49.7	50.9	50.8	48.3	46.3	47.0	0.7	
	정밀기계·의료기계·기구제조	45.4	45.0	47.9	48.9	49.2	47.8	49.8	49.4	50.4	51.2	47.9	48.6	47.9	▲ 0.7	
	기타 제조	38.4	35.2	35.4	38.7	38.7	37.1	40.7	37.8	39.2	37.7	40.0	39.8	40.0	0.2	
	전체	42.9	42.3	43.0	44.6	45.1	44.4	44.5	44.0	44.6	44.2	43.2	43.3	43.3	0.0	
도매	식품료품도매	37.1	37.6	38.3	39.7	40.6	42.6	42.9	43.0	44.1	42.7	43.6	43.0	43.1	0.1	
	섬유·섬유제품·장신구도매	30.7	30.2	31.1	32.2	33.3	35.5	37.0	34.8	34.4	34.7	36.5	37.8	34.4	▲ 3.4	
	건축·가구·요업·토석제품도매	39.5	39.3	39.0	40.5	40.2	38.2	38.7	38.1	39.8	39.7	39.5	41.3	41.5	0.2	
	종이류·문구·서적도매	33.5	31.8	33.2	35.1	37.7	37.3	38.1	34.5	37.1	36.5	36.8	36.8	37.4	0.6	
	화학품도매	40.0	37.8	38.9	41.2	41.8	42.5	43.0	43.1	43.9	42.6	42.3	42.5	42.8	0.3	
	채산자원도매	40.4	40.8	39.0	38.5	39.3	39.7	42.3	40.1	35.8	36.0	25.8	29.9	26.7	▲ 3.2	
	철강·비철금속·광업제품도매	43.8	42.1	43.9	43.5	43.2	41.2	40.3	39.3	40.4	40.3	38.5	38.8	39.4	0.6	
	기계·기구도매	43.6	43.2	44.8	46.0	47.3	46.7	46.3	45.1	45.6	45.3	43.6	43.6	43.4	▲ 0.2	
	기타 도매	37.1	35.1	37.5	38.5	40.7	40.9	41.8	42.0	42.4	41.4	40.8	41.0	41.1	0.1	
	전체	40.0	39.1	40.4	41.5	42.5	42.3	42.5	41.7	42.5	41.9	41.2	41.5	41.4	▲ 0.1	
	소매	식품료품소매	34.7	34.5	36.8	38.2	39.4	39.3	41.6	42.7	45.0	44.0	44.5	44.6	41.4	▲ 3.2
		섬유·섬유제품·장신구소매	32.0	30.8	30.7	32.3	34.8	38.0	40.2	37.0	38.6	38.7	36.9	40.1	36.8	▲ 3.3
		의약품·임용장비제품소매	42.6	38.9	44.6	45.3	46.0	48.1	48.0	48.6	49.3	48.7	46.7	48.6	50.0	1.4
가구류소매		27.3	26.4	28.8	33.3	33.3	27.8	35.0	40.0	43.3	41.7	41.7	42.9	42.9	0.0	
가전·정보기기소매		36.0	34.3	39.3	39.0	43.2	38.4	41.5	40.6	38.9	38.3	44.6	39.6	38.7	▲ 0.9	
자동차·동·부품소매		31.8	28.7	37.8	40.7	38.8	36.5	39.9	37.2	38.3	38.7	38.6	39.9	38.2	▲ 1.7	
선문상품소매		36.0	39.2	41.4	43.7	42.3	39.4	40.5	38.0	39.9	41.6	40.7	39.2	39.8	0.6	
각종상품소매		39.1	40.5	42.6	41.0	40.6	47.1	49.7	48.1	48.8	49.0	47.3	46.5	47.3	0.8	
기타 소매		40.0	41.7	33.3	36.7	38.9	41.7	36.1	43.3	35.7	44.4	44.4	36.1	38.9	2.8	
전체		35.5	35.9	39.1	40.5	40.5	40.2	42.1	40.7	41.9	42.4	42.2	41.6	40.9	▲ 0.7	
운수·창고		44.8	43.8	43.7	44.8	44.9	44.8	44.8	42.6	44.4	44.9	45.1	44.7	45.4	0.7	
서비스		음식점	45.1	39.9	44.6	45.2	49.2	50.0	49.6	48.3	47.4	51.3	45.3	49.2	46.2	▲ 3.0
		전기통신	48.1	50.0	56.3	53.7	48.3	54.2	53.7	50.0	47.0	53.0	59.3	57.6	53.0	▲ 4.6
	전기·가스·수도·열요금	43.8	44.4	50.0	50.0	48.3	55.0	53.7	53.0	50.0	51.9	56.7	55.0	55.0	0.0	
	리스·임대	49.9	49.1	50.9	50.0	49.3	49.6	47.9	47.9	48.7	49.9	48.0	48.0	49.2	1.2	
	표판·호텔	47.0	47.6	47.7	49.5	48.6	51.4	53.1	54.2	59.2	59.0	58.3	61.4	59.1	▲ 2.3	
	모객서비스	36.4	36.5	34.4	36.7	40.6	38.7	40.2	37.9	37.3	38.0	37.9	38.0	38.0	0.0	
	방송	43.3	41.7	44.4	40.0	45.6	47.9	45.6	46.1	49.1	46.1	41.7	45.1	46.9	1.8	
	엔터테인먼트·경비·검사	43.1	42.6	44.6	46.9	47.2	47.8	48.1	47.4	47.6	47.4	46.0	46.1	47.1	1.0	
	광고관련	38.7	38.8	38.8	39.3	42.1	42.2	41.1	41.0	39.8	40.7	40.8	40.7	40.3	▲ 0.4	
	정보서비스	51.6	52.2	53.5	54.6	56.3	56.3	55.3	55.4	56.4	55.8	55.5	56.0	54.9	▲ 1.1	
	인재파견·소개	53.9	54.0	55.7	57.5	56.7	55.5	56.2	56.3	54.4	55.0	54.2	54.7	52.5	▲ 2.2	
	전문서비스	50.7	50.3	50.8	51.4	53.0	51.0	51.7	50.9	52.0	51.4	51.5	49.0	50.3	1.3	
	의료·복지·보건위생	45.0	44.1	44.7	45.7	45.3	46.1	46.3	43.3	45.3	43.6	42.8	42.3	44.1	1.8	
교육서비스	41.7	39.9	40.5	40.2	39.5	41.2	41.1	44.4	40.6	44.1	42.1	45.0	50.8	5.8		
기타 서비스	45.2	45.0	47.4	48.1	47.2	46.1	46.8	49.5	50.9	48.5	49.3	49.2	50.1	0.9		
전체	47.3	47.2	48.3	49.2	50.3	50.1	49.9	49.7	50.4	50.1	49.6	49.6	49.6	0.0		
기타	37.7	41.5	37.3	41.7	42.0	43.2	40.2	41.9	42.6	40.7	41.4	42.3	41.9	▲ 0.4		
격차 (10개업종별 『기타』 제외)	15.5	14.4	11.3	10.4	10.3	9.9	7.8	9.0	8.5	8.2	8.4	8.1	8.7			
중국진출	45.3	44.7	45.6	47.4	47.8	48.2	47.9	47.0	47.5	46.9	45.6	45.6	44.8	▲ 0.8		
태양광발전	46.5	46.0	45.7	47.0	48.0	46.0	47.2	44.5	47.8	46.5	45.0	44.7	44.3	▲ 0.4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태양광발전」은 셀·모듈, 부품·재료, 제조장치의 각 제조회사, 에너지, 판매·시공 등을 포함함.

규모별 : 9년 9개월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보합, 경기의 교착(膠着) 나타나

- 「대기업」이 48.4(전월과 같은 수준), 「중소기업」이 43.7(전월과 같은 수준), 「소규모기업」이 43.1(동 0.1포인트 감소)이 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시에 전월 대비 보합을 나타낸 것은 코이즈미 정권의 경기확대가 전환된 시기인 2006년 2월 이래로 9년 9개월 만이다. 「대기업」은 신규고객의 유치에 고전이 지속된 보험이나 신용금융 등을 포함한 『금융』 등 5개 업계가 악화, 「중소기업」도 가격경쟁이 격해지는 『소매』 등 5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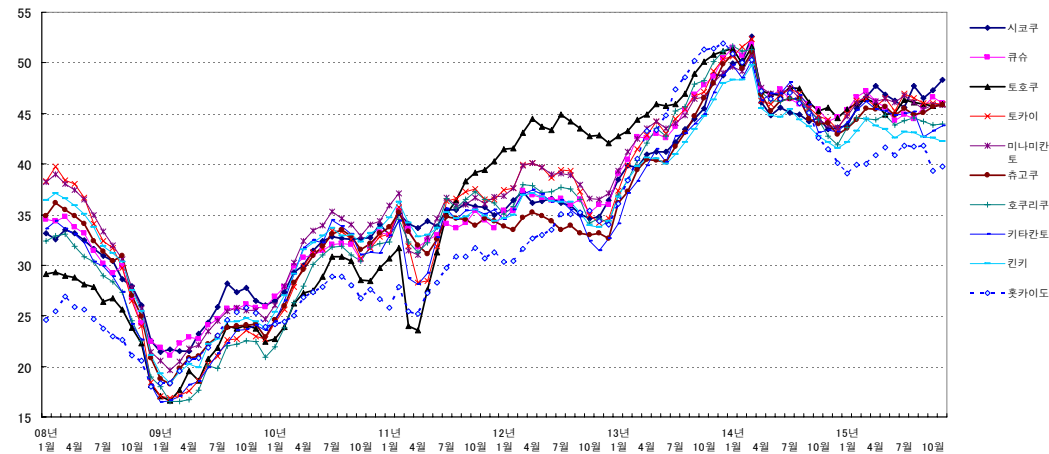
	14년 11월	12월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비
대기업	46.9	46.6	47.1	48.0	48.6	48.9	49.2	48.4	48.8	48.9	48.2	48.4	48.4	0.0
중소기업	42.6	42.0	43.0	44.2	45.0	44.3	44.3	43.6	44.5	44.1	43.6	43.7	43.7	0.0
(그 중 소규모기업)	42.1	41.6	42.3	43.4	44.3	43.1	43.2	43.1	43.4	43.2	43.2	43.2	43.1	▲ 0.1
격차(대기업-중소기업)	4.3	4.6	4.1	3.8	3.6	4.6	4.9	4.8	4.3	4.8	4.6	4.7	4.7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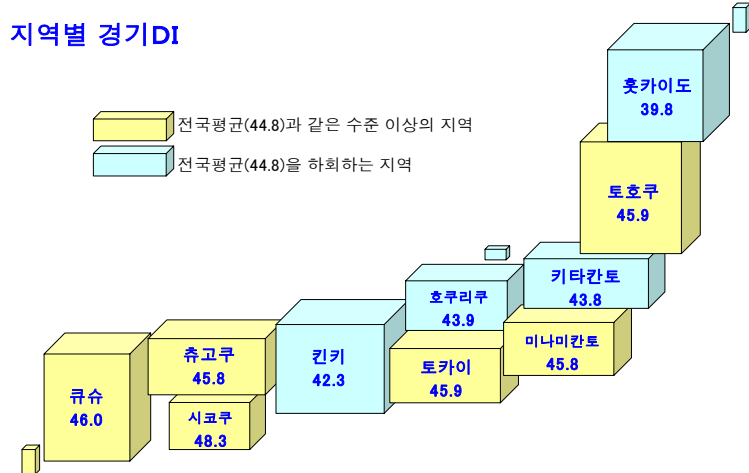
지역별 : 10개 지역 중 5개 지역이 개선되기도, 『킨키』는 소비관련이 저조하여 4개월 연속 악화

- 『홋카이도』나 『키타칸토』 등 5개 지역이 개선, 『킨키』나 『큐슈』 등 3개 지역이 악화, 『미나미칸토』와 『호쿠리쿠』의 2개 지역이 보합되었다. 『키타칸토』는 자동차관련 등의 호조로 1년 8개월만에 지역내 5개 현 모두가 개선되었다. 반면, 『킨키』에서는 소비관련에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경기감속의 영향을 받아 4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 『키타칸토』(43.8)…전월 대비 0.5포인트 증가. 2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소매』는 자동차소매나 주유소 등의 전문상품 소매가 크게 개선되었다. 지역내의 자동차관련과 함께 펄프·종이·종이가공품, 화학품이 호조를 띤 『제조』 등 10개 업종 중 6개 업종이 개선되었다. 각 현 별로는 군마현이 4개월만에, 이바라기현이 3개월만에 개선되는 등 갑작스런 수요가 발생하였던 2014년 3월 이래 1년 8개월만에 지역내 5개 현 모두가 개선되었다.
- 『홋카이도』(39.8)…동 0.5포인트 증가. 4개월만에 개선되었다.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항공편 증가에 더하여 가솔린이나 경유가격이 전국 내에서도 낮은 수준이 되어 『운수·창고』가 동 4.0포인트 증가로 대폭 개선되었다. 또한 음식점이나 리스·임대 등이 호조를 띤 『서비스』 등 10개 업종 중 8개 업종이 개선되었다. 반면, 『제조』는 섬유나 화학품 등을 중심으로 악화되었다.
- 『킨키』(42.3)…동 0.3포인트 감소. 4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오락서비스나 여관·호텔 등의 『서비스』 『소매』 등 개인소비관련의 체감경기가 악화된 이외에 『부동산』에서는 중고물건의 성약이 부진하였다. 또한 중국경기의 감속으로 일반기계나 수송기계, 금속제품 등의 생산이나 수출이 저조하였던 『제조』는 4개월 연속으로 악화되는 등 10개 업종 중 6개 업종이 악화되었다.

지역별 그래프(2008년 1월부터의 월별추이)



지역별 경기DI



	14년 11월	12월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비
홋카이도	41.5	40.1	39.1	39.9	40.0	40.8	41.6	40.9	41.8	41.8	41.8	39.3	39.8	0.5
토호쿠	45.6	44.5	45.4	46.0	46.5	46.0	44.9	45.0	46.3	46.1	45.9	45.8	45.9	0.1
키타칸토	43.4	43.2	44.1	45.3	46.2	45.4	45.2	44.8	45.0	45.2	42.6	43.3	43.8	0.5
미나미칸토	43.8	43.6	44.7	46.0	46.8	46.2	46.5	46.1	46.8	46.1	45.4	45.8	45.8	0.0
호쿠리쿠	42.8	41.9	43.6	44.6	44.4	44.4	44.8	43.8	44.3	44.6	44.2	43.9	43.9	0.0
토키아	44.4	43.4	45.0	46.3	46.4	45.6	46.5	45.3	46.9	46.5	46.0	46.0	45.9	▲ 0.1
킨키	42.1	41.5	42.2	43.2	44.5	43.7	43.4	42.6	43.2	43.1	42.7	42.6	42.3	▲ 0.3
츄고쿠	44.0	42.9	43.6	44.4	45.5	45.4	45.6	44.8	45.5	44.9	45.0	45.6	45.8	0.2
시코쿠	43.5	43.6	43.8	45.5	46.6	47.7	46.9	46.3	45.6	47.7	46.5	47.3	48.3	1.0
큐슈	44.2	44.7	45.3	46.6	47.2	46.2	45.6	44.3	44.9	44.5	45.7	46.6	46.0	▲ 0.6
격차	4.1	4.6	6.3	6.7	7.2	6.9	5.3	5.4	5.1	5.9	4.7	8.0	8.5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